

차준희 교수의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2강 공존의 영성

예레미야 7:1-15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temple sermon)라고 불리는 유명한 단락이다. 이 사건은 예레미야 26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 7장이 예레미야의 설교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 26장은 이 설교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예레미야 26:1에 의하면 이 설교는 여호야김 왕의 즉위 초(주전 608년)에 행해진 것이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렘 26:1).

예레미야는 주전 627/6년에 소명을 받고 예언자로서 활동을 시작한다(렘 1:2). 흔히 예레미야 1-6장의 내용을 예레미야의 초기 선포 사역(주전 627/6-622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 예레미야 7장의 성전설교는 예레미야의 예언활동의 두 번째 기간에 속한다(주전 608-597년). 예레미야의 활동은 주전 622년부터 608년까지의 공백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 예언자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하는 해인 주전 622년부터 침묵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전 609년 요시야의 죽음과 608년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는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 14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처음으로 행한 설교가 오늘의 본문이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설교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된다(렘 26장).

1.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聖殿)이라고?(렘 7:1-4)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식의 성전 비판,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판 설교는 예레미야 이전에도 있었다. 약 100년 전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배 예언자 미가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미 3:12).

그러나 예레미야의 현 상황은 미가 때와는 달랐다. 미가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이외에도 여러 개의 합법적인 성소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주전 621년에 실시된 요시야의 종교개혁(특히 예배 성소의 단일화 정책)으로 지방의 모든 성소들은 폐쇄되거나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하게 합법적인 성소로 남게 되었다(왕하 23:5-8).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의 장소는 오직 한 곳밖에 없었다. 게다가 유다 백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종교 개혁의 영웅 요시야 왕도 주전 609년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므깃도에서 뜻밖에도 전사하고 말았다.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왕하 23:29).

유다는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국가적 비운을 맞게 된 것이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는 국가적으로 실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둡고 불안한 시기였다.

남 유다에서는 특히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온 양대 신앙이 있었다. 첫 번째는 다윗왕조신앙이다. 이는 다윗계통의 왕조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신앙이다(삼하 7:12-16). 두 번째는 시온신앙이다. 이에 따르면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주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공격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시 132:13-14; 참조. 시 46편). 즉 시온신앙은 시온의 불가침 신앙을 말한다. 그런데 요시아의 뜻밖의 전사로 신앙의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인 다윗 신앙은 더 이상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버팀목이요 보루로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온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야웨의 성전이라, 야웨의 성전이라, 야웨의 성전이라”(렘 7:4)하며 외친다. 이러한 이른바 ‘야웨 성전 삼창(三唱)’(렘 22:29; 참조. 사 6:3)은 열정적으로 맹세하는 호소를 뜻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의 유일한 성소로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은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보장한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예레미야는 이를 거짓말이라고 일갈한다(렘 7:4). 성전이라고 모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라는 것이다. 건물의 외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참조. 왕상 8:13; 대하 36:15).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나님이 당연히 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속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전에 계셨던 것은 순전히 은혜의 발로(發露)였다. 하나님은 성전을 언제든지 떠나실 수도 있고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렘 12:7).

따라서 성전 자체에 신비한 마력이라도 있다는 듯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치장하는 것에만 혈안이 된 미신적인 성전신앙은 성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사 66:1).

오늘날 흔히 말하는 교회는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성전이 아니다. 단지 예배당일 뿐이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전 3:16; 참조. 엡 2:20-22).

그러므로 교회와 성전을 무조건적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예수님과 성도라는 ‘영적 인격체’(spiritual personality)이다. 교회건축은 신앙생활의 효율성을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될 수는 없다.

2. 성전이 도둑의 소굴(巢窟)이 되다니!(렘 7:8-11)

성전으로 몰려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온갖 죄악들(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을 저지른다(렘 7:9). 그들은 온갖 죄들로 찌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렘 7:10)고 떠들어댄다. 예레미야는 윤리적인 부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미신적 안전의식에 사로잡힌 동족의 행태를 비판한다. 불행하게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행실에 대한 각성이나 돌이킴도 없이 그저 성전에 가서 제물을 많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야웨가 계시는 ‘야웨의 전’(히_헤이칼 야웨)으로 보았지만, 예레미야의 눈에 비친 이 성전이란 단지 ‘이 집’(히_하바이트 하제) 즉 야웨 하나님이 이미 떠나 버린 하나의 건물에 불과 하였다. 4절의 “야웨의 전”이라는 백성의 외침과 10절의 “이 집”이라는 예레미야의 주장은 대조가 된다. 예언자는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야웨의 집’이라는 표현구를 회피하고, 그 대신 야웨를 생략하고 그 자리에 냉소적이고 거리감을 표시하는 지시대명사 ‘이것’(히_하제)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집이 예언자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렘 7:11). 성전 밖에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도 성전에 들어와 안심하는 유다 백성들은 마치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남이 모르는 동굴에 들어와 숨고 희희낙락(喜喜樂樂)하며 다음 도둑질을 계획하는 강도와 같다. 야웨 하나님은 도둑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에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다. 예레미야는 야웨의 현존과 성전이 이미 분리되었음을 간파한다.

온갖 부정한 일로 더럽혀지고 회개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는가!

3. 어찌 역사의 교훈을 이토록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렘 7:12-15)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운명을 이미 파괴되어 버린 실로의 운명과 동일시한다(렘 7:14). 구약성서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더불어 오로지 실로의 성소만이 '야웨의 전'(히_헤이칼 야웨)이라고 불린다(삼상 1:9; 3:3). 실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처소였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렘 7:12).

우리말 성서에는 '처소' 앞에 있는 '나의'라는 소유대명사가 생략되어있다. 이 대명사는 야웨와 실로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다. 실로의 성소는 일찍이 사사시대부터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유서 깊은 순례지였다(삿 18:31 등). 이스라엘의 큰 축제일들(가을철 추수 축제일, 장막절, 신년 축제일 등)이 되면 수많은 인파의 순례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았던 장소이기도 하였다(수 18:1; 삿 18:31; 21:19 등).

12절에 따르면 실로 성소의 파괴는 단순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범실(凡失)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북 이스라엘의 최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참조. 시 78:56 이하, 특히 60절). 따라서 실로의 성소는 흔히 생각하고 있는 주전 11세기 중엽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주전 722년 아시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절의 심판선포와도 자연스럽게 이어 진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주전 722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주전 587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란 결코 적들에게 침범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보는 미신으로 가득 찬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실로의 파괴사건이 갖는 교훈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장소가 바로 실로 성소였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셨다. 역사적인 비중으로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실로에 비하면 차선일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정복되었고(삼하 5:6-12),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이곳에 안치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었다(왕상 8장). 첫사랑인 실로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조강지처(糟糠之妻)도 아닌 예루살렘이 감히 치외법권(治外法權)이 될 수 있는가?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최악으로 인하여 실로는 더 이상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없었다.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첫사랑인 실로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다. 실로의 폐허더미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에 예외란 있을 수 없다는 냉혹한 역사적 교훈을 웅변하고 있다.

예레미야는 외친다. “나의 첫사랑 실로에 가보라!”(렘 7:12-14). “북 이스라엘의 몰락과 패망의 교훈을 아는가?”(렘 7:15). 우리가 역사를 끊임없이 되짚어 보아야 할 이유는 그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이건 조상들의 비극적 실패의 역사이건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낭송하고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곱씹어 보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국립묘지 옆에 있는 유대인 육백만 학살 기념관인 야드 바셈 전시실 2층의 동판에 바알 섰 토브라는 유대인 학자의 말로 알려진 이런 문구가 있다.

“망각은 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

그렇다, 역사의 망각은 또다시 동일한 화(禍)를 불러들일 수 있다. 지나간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계속해서 후손에게 전수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는 법이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생존과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반추(反芻)는 곧 오늘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4.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聖殿)이 되려면(렘 7:5-7)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전이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을까? 야웨께서 계속해서 성전에 거하시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영원 무궁히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따른다.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 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 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에니라”(렘 7:5-7).

이들에게 요구되는 바른 삶이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2) 이웃들 사이에 정의(正義)를 행하며, 3)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4) 다른 신들을 좇아 화(禍)를 자초하지 않는 것이다(렘 7:5-6).

첫째, 우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야 한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들의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의 삶에서 윤리적인 삶이 결코 소홀히 간주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신앙이 윤리와 동일시되지는 않지만, 신앙은 윤리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신앙은 윤리를 포함한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참신앙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비윤리적이지 않고 참 윤리적이다.

둘째, 이웃들 사이에 정의(公의)를 행해야 한다. 교회와 신앙인들은 ‘공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여도 그냥 넘어가는데 의아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

간의 잘못을 저지르면 유독 세상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더니 정말 정직해!’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는 교회까지도 공의로운 공동체라는 명망을 더불어 얻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셋째,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철저히 책임져야 합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은 ‘구제의 삶’에 주력해야 한다. 적어도 교회가 있는 주변 지역의 약자들은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 교회는 그 지역의 최후의 버팀목으로 철저히 지역교회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회가 서 있는 지역을 섬기는 것이 곧 열방을 섬기는 것이다. 지역은 열방의 한 구역이다. 지역을 소홀히 하고 열방을 품는다는 것은 거짓이고 허위이다. 교회는 약자들의 도피성이다. 우리는 약자들에 대한 책임과 돌봄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참조. 마 25:31-46).

나가는 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다. 그것은 ‘도덕적 삶’, ‘공의의 삶’, ‘구제의 삶’이다. 예레미야 7:5-7에서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신앙인들도 이런 삶을 실천했으면 참 좋겠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건물 신앙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폐기되었다. 적어도 예언자들의 눈에는 건물 자체가 성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도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도덕, 공의, 그리고 구제가 있어야 한다. 신앙을 도덕이나 윤리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윤리와 도덕이 빠진 신앙은 맹신이고 광신이다. 윤리와 도덕은 신앙에서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

구약성경에 ‘이러한 약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신 14:11).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이 땅에서 모두 없어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고 아예 손을 놓아야 할까? 아니다. 가난한 자는 늘 존재한다. 그래서 도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와야 한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란 더불어 사는 것(공존과 공생의 삶)임을 배우며, 가난한 자는 부자의 신앙과 자선 상태를 검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 약자들을 의식하고 살면서 그들을 구체적으로 섬겨야 한다. 약자는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리트머스와 같다. 이 세상은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다. 약자층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공멸하게 되어있다.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고 공생해야 한다. 알고 보면 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은 강한 지체가 사는 길이기도 하다.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공존의 영성’

이 필요하다. 인류는 ‘호모 심비우스’(공생하는 인간)로 진화하고 있다고 한다. 타인과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은 도태되고 공생하는 인간이 살아남는 호모 심비우스 시대의 생존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나침반 바이블
BIBLE